

이원범의원-방송대 이인경교수

불교비하 발언 '물의를'

종교편향대책위 공식사과 요구 방송위, sbs '서세원의...' 연출자 경고

공인(公人)들의, 스님 또는 불교비하 발언 등 종교편향적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그맨 서세원이 sbs TV 프로그램에서 개신교 편향적인 방송진행으로 불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데 이어 자민련 이원범의원과 방송통신대 이인경교수 등이 공개석상에서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자민련 이원범의원(대전 서갑)은 21일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토론했며 "중선거구제는 종이 입후보하는게 아닌데, 중선거구제냐"며 스님을 비하하는 비유를 들어 현행 선거구제 유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

에 대해 교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의원은 22일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누를 끼쳐 유감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불교계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현진, 원혜스님)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키로 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인직 사퇴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불교비하 발언의 주인공 방송대 이인경교수(국문학과)는 3월17일 국문학사 강의시간 중에 MBC-TV의 '청춘합시다'를 소재로 이야기하면서 "절에서 불교해 낳은 아들은 모두

스님들의 자식이다", "MBC TV '청춘합시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다"는 등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22일 이인경교수의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대에 전달했다.

한편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렬)는 sbs TV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의 항의공문이 접수되

종단-단체 초과일 앞두고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 확산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결식아동, 실직자,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모으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제1차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을 마친 태고종은 계속해서 '자비보시행 실천하기'를 주제로 5월 31일까지 제2차 쌀모으기 운동을 펼친다. 태고종은 종단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02)745-2030

서울 강남포교도회 3월부터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포교원 2층 법당에 할아리를 마련해 놓고, 자비의 쌀을 모으자는 스티커까지 제작배부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2)539-2631

부산 동송사회복지관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백미나누기 사업을 시작했으며(051)265-9471, 서울 삼전종합복지관도 나눔의 쌀 모금 운동에 착수했다. (02)421-6077

이밖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가 지난해부터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쌀모으기 법회를 열고 있으며, 경복궁 이웃을 돕는 사랑담도 실직자를 위한 쌀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애기봉 봉축 점등...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 통일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부처님 오신날을 기원하는 연등이 밝혀졌다. 조계종총무원과 해병대 청룡부대는 22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교계인사, 청룡부대 부대장과 군불자, 지역유지 등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봉행했다. 김포=고영배 기자

뉴스 & 뉴스

구미 금오사회복지관 개관

공단지역인 구미에 불교계 복지시설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이 29일 개관한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연건평 470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공부방 및 쉼터, 기능교육실, 강당,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금오복지관은 실직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 실직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실직자 긴급 지원 서비스 등에 주력한다. <관장 인터뷰 4면> 한영우 기자

영문소식지 '로터스 랜턴' 창간

영문판 한국불교 소식지 'Lotus Lantern(로터스 랜턴)' 창간호가 22일 나왔다. 창간호는 20쪽 분량으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창간사,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한국의 사찰-불교사, 한국불교 소개 등을 실었다. '로터스 랜턴'은 주간으로 5백부를 발행해 외국정부의 주요기관과 대학도서관,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정성운 기자

보리수자치회 조계종 방문

파행운영되고 있는 보리수마을 주민자치회장 장이상씨 등 자치회 관계자 3명은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만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이상씨는 "자치회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조계종단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상화될 때까지 총무원에서 매달 5~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부탁했다"고 밝혔다. 자치회서 제외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영우 기자

"한민족동포 법적지위 보장"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회장 법등스님)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소련지역의 한민족 동포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재일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중국과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동포와 후손을 법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정화회의 중정 추대식

정화개혁회의는 5월7일 오후2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중정 추대식을 갖고 통도사 방장 원하스님을 새 중정에 추대할 예정이다.

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23일 "제2정화불사의 실천수행과 원만성취 회의를 위해 제10대 중정 추대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세운지 1300여년만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세워진지 1300여년만에 해체 복원된다. 이로써 일제가 1915년 붕괴를 막으며 석탑의 파괴된 부분에 흙물스레 바른 시멘트 덧칠도 벗겨지게 됐다.

문화재관리국(국장 정문교)은 22일 "붕괴 가능성 때문에 지난 1년여동안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복원 방법은 '해체-보수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 7세기 초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지 석탑은 그동안 붕괴 가능성만 아니라, 일제가 덧바른 시멘트가 수명을 다해 탑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해체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탑을 이룬 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 바닥에 평공과 있는 형편이고, 장마철에는 습기가 탑 내부로 스며들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승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군법당 법사없이 법회"

군불교진흥회 군중장병 30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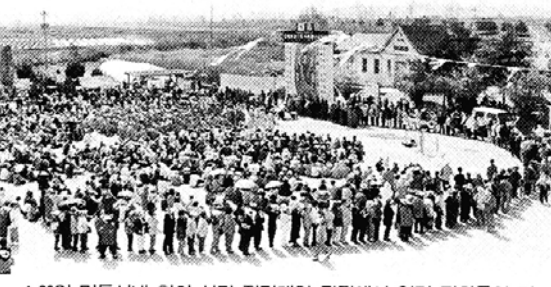
군법당에서 열리는 법회에 법사가 없어 불교 군중병이 직접 법문을 하는 등 군법사의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신교와 달리 불교 군중장병이 정식 법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종교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교 군중장병들의 교리 이해 수준도 낮아 이에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군불교진흥회가 최근 군중장병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 군중장병 의식조사' 결과 밝혀진 것.

먼저 '법문은 누가 하나'란 질문에 군중병 13명, 인군사찰 스님 11명, 상급부대 군법사 7명, 재가법사 4명, 불교 비디오상영으로 대체 1명 순(교차 응답)으로 답변해 법사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법당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회용 물품 확보' 14명, 주변의 이해부족(간부의 비협조, 업무전담의 어려움) 10명, 법사 섭외 7명 순으로 응답해 군법당에 대한 지원의 확보와 불교 군중병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중장병의 신병 경력은 1~2년이 15명, 3~4년 4명, 5~6년 4명, 7~8년 3명, 9년 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병경력이 없는 군중병도 7명에 달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불교 군중장병들은 이밖에도 불서 합장주(염주) 독경테이프 간식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군중병 연수교육과 군법사 배출의 확대, (외부 사찰 등의)군법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 군중병 입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20일 민통선내 철의 삼각 전망대 앞 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 및 전통장터고촌 천도를 위한 수륙영산대법회.

태고종 '환경선언문' 채택

20일 수륙대제 3천명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20일 팔정리 전망대 앞 광장에서 '조국 평화통일 기원 및 전통장터고촌 천도를 위한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보안·지압 총무원 부장장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식전 행사 2부 기원법회 부 수륙영산제 4부 방생및 환경리조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암 부원장스님이 대신하는 대회사에서 인곡 총무원장스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과보"라고 지적하고 "오늘 법회를 계기로 불신과 반목, 편협된 사고를 버리고 대동단결하여 국가경쟁에서 리수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를 계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지구환경 보전 실천을 불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공동생명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검소한 삶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 △매일 사찰주변의 정화와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할 것 △발우공양장신을 발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것 등 6개 항의 환경보존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2천만인의 깨달음을

참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 제 1 편 : 부처의 생애
·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중인 洪淳微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a)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관음역사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40,000
- ◆ 그림 당시주 대전 4x6배판 정가 25,000
-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 고전 통수학 핵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 해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x6배판 정가 15,000
- ◆ 관상 수상화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시합을 치르고 주먹을 사고, 주먹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S 신/양장본 /40,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即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종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8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복도중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목욕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복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go.com/baeghj/

세상을 뚫다의 향기로

기득 채우겠습니다 불교전문출판 불회사

불교전문출판 불회사에서 하는 일

초파일 홍보물 기획제작
사찰 포교용 홍보전단 기획제작
법보시용 책자 발간, 경전 및 법요집 발간
불교서적 기획출판, 사보寺報 기획제작
과중인쇄물 기획제작

■ 불회사의 네 가지 장점과 약속 ■

첫째▶불교활동을 다양하게 해 온 젊은 불자들이라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둘째▶불교출판에 대한 원력으로 오랫동안 자료수집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셋째▶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수입금 중 일부를 불교계 포교사업 및 복지사업에 회향합니다.

불교전문출판 불회사

501-1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6-7
전화 (062)225-8825~6 팩스(062)225-8826